

영미문화연구소 초청특강

신자유주의 이후 미국 연극 속 노동의 풍경

강연자: 오한솔 박사님
(Graduate Center CUNY)

지난 세기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일과 일의 경험을 끈질기게 주변화하고 사사화합니다. 본 강연에서는 미국 연극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삶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상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. 그간 미국 연극에서 '노동'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져 온 방식을 살펴보고 앤니 베이커의 풀리처 수상작 <더 플릭 (The Flick)> 을 통해, 연극이 일과 일의 경험을 관객에게 구체적으로 감각하게 하는 방식, 노동과 노동자를 사회적 상상력 속에 재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

일시: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
장소: 국제관 308호
문의: kimhj_99@korea.ac.kr